

2019 석유, 가스 및 화학산업 전망

석유, 가스 및 화학산업의 5가지 트렌드



2018: 우리는 사이클의 어디쯤에 있는가?

석유 시장은 2014년 이후의 경기침체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 유가는 연평균 40달러 대였던 2016년의 낮은 WTI 가격에서 회복되었다. 2017년에는 50달러를 돌파했고, 2018년 9월까지의 평균 67달러를 밑돌았다. 이와 같은 회복세는 OPEC과 비OPEC 회원국 간 생산 감축 협정의 계속된 성공, 신흥 생산자들의 출하량 감소, 세계 석유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결과였다. 상기 요인들은 2016년 이후 석유 재고량을 1억 7천 5백만 배럴 이상 감소시키고 유가를 상승시켰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은 미국 원유 및 천연가스액(NGL) 생산이 다시 한번 놀라운 성장을 누리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생산량이 풍부한 퍼미언 분지를 중심으로 2018년에 약 2백만 b/d가 증가하였다. 천연가스 가격은 2018년 미국에서 약 \$3 근처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풍부하고 비용이 낮은 미국의 공급이 계속해서 자국 및 수출시장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화학 산업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기초 화학물질의 새로운 주요 설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수요 추세를 앞서간다면 마진이 감소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학 부문은 생산 능력의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유지하고, 여전히 견실한 북미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며, 국제 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개선된 항만 시설의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가벼운 침체 이상의 어떤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흥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플라스틱 재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화학 부문은 중대한 하방 리스크로부터 상당히 잘 방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 전망: 긍정적인 신호와 우려 공존

딜로이트가 석유, 가스 및 화학 회사 임원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 성장, 상품(commodity) 가격 및 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와 함께 회복 심리가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과 세계 경제가 강한 성장을 보이고, 에너지 수요가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며, 몇몇 주요 수출국의 공급 위험이 지속되면서 시장 지표들 또한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호시절이 돌아오는 것일까?

낮은 실업률, 기업 투자 재활성화, 물가 안정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건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중인 관세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감세와 높은 수준의 정부지출 등 추가 부양책과 긍정적인 펀더멘털이 결합되어 단기적으로 2.5~3%의 성장률이 계속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몇 년 동안 경기부양책의 영향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금리인상이 계속되어 투자와 소비자 수요를 모두 위축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철강 등 핵심 재료에 대한 관세와 공급망 차질로 인해 기업 비용이 높아지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재조정 기간이 있을 것이다. 에너지 산업에는 송유관, 정제소 및 화학 플랜트에 특수 철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불확실성과 관계없이, 2019년 에너지 산업에 관해서는 장기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에너지 회사의 틈새 이슈가 아니며, 전략 및 투자 결정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주요 석유 회사들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천연가스 생산업체, 운송업체, 소비업체는 메탄 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주목하고 있고, 화학 제조사는 신 물질 및 새로운 프로세스의 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도 오염 공장을 폐쇄하는 등 환경 및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기술은 멈춰 있지 않다. 저탄소 에너지, 자율주행차, 에너지 효율, 분산 에너지의 범위 및 속도의 성장은 미래학자들만의 주제가 아니며, 에너지 및 화학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의 초점이 되고 있다.

불확실성의 세계, 5가지 주요 트렌드

1. 숫자를 잊지 마라 - 투자자에게 수익성으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

2018년의 상품 가격과 현금흐름 회복은 동 산업에 좋은 소식이었다. 당면 과제는 이를 지속가능한 수익성과 수익률로 바꾸는 것이 될 수 있다. 침체기에는 비용 억제, 자본의 개선(high-grading),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이득이 있었다. 이 상태가 유지될 것인가? 서비스 부문 이윤 회복을 위해서와 원자재 비용 상승 때문에 일부 비용은 불가피하게 상승할 것이다. 문제는 상품 가격 사이클을 통해 납득 가능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침체기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며, 기술 및 운영 관행은 언제나와 같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2. 공급이나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 인프라 문제

송유관, 가공 설비, 수출입 터미널, 저장 설비, LNG 플랜트 등의 건설과 확장은 필수적이지만 가치사슬에서 종종 저평가되는 부분이다. 인프라의 계획, 허가 및 건설은 갈수록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반대 단체들의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지연됨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다. 이는 가격 스프레드와 제품 이동을 위한 물리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유, 가스 및 화학 제품 개발에 종사하는 어느 누구도 돌아가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3. 천연가스

마르셀러스 지대나 퍼미안 분지 같은 북미 지역에 적당한 가격의 천연가스가 풍부하다는 사실은 석유 산업에서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 변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국내외의 저탄소 발전원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석유화학 설비에 대한 새로운 투자 물결은 미국 천연가스와 NGL 공급의 증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현재 사빈 패스와 코브 포인트에 2개의 가동 중인 설비를 보유하고, 2019년에는 4개의 시설을 더 가동할 예정인 글로벌 LNG 시장의 주요 참가자이다. 이는 글로벌 가격, 거래 흐름 및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은 있지만, 최근 또 다른 주요 북미 LNG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승인(FID) 결정은 북미 가스 공급업의 생존력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반영한다.

4. 지속가능성의 의무 - 변방에서 핵심으로

에너지 및 화학 회사에게 지속가능성 아젠다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이들은 몇 년 동안 환경 발자국, 영향 완화, 지속가능성에 관해 보고하고 소통해왔다. 그러나 환경 및 기후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사회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사업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지속가능성을 수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석유, 가스 및 화학 회사들은 재생가능한 저탄소 에너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들 자신의 환경 및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기술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5. 디지털 기술은 석유, 가스 및 화학 가치사슬 전체와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부터의 기회는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효율성, 생산성,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애널리틱스, 로봇틱스, 블록체인 등의 활용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집약적인 석유, 가스 및 화학 산업의 환경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확대 도입하기가 복잡할 수 있다. 정유와 석유화학은 수년 간 프로세스 자동화의 선두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산업들도 디지털 기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성공한 기업들은 비즈니스 사이클을 통해 번창하고 고객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잘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360도 시각이 필요하다

본 고는 2019년 석유, 가스 및 화학 비즈니스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져가고 있으며, 360도 시각은 필수적이다. 회사는 많은 지표, 트렌드, 추진 요인 및 신호를 확인해야 한다.



석유, 가스 및 화학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작동 인식(operational awareness)과 자본효율성(capital discipline)이 성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시장이 변화하더라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큰 폭의 성장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률과 자본효율성을 원한다.



기업은 모든 의사결정 단계의 핵심에 외부 역학관계를 더 많이 개입시켜야 할 필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 규제 및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다.



석유, 가스 및 화학 산업은 기술과 혁신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현재, 디지털 기술 전체가 기회에 포함되며 공급망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일의 선도기업이 되려면 오늘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불확실성은 유일한 확실성이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 to clients, delivering the insights they need to address their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Deloitte’s more than 220,000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